

# 나주시, 대규모 소비 축제 ‘연말 빅세일페스타’ 연다

10~25일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최대 300개 상점 모집해 추진  
상점별 5~20% 할인+나주시 캐시백 15%...상점당 최대 20만원 지원

나주시가 연말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규모 소비 축제를 연다.  
나주시는 연말 소비 수요를 겨냥해 상점 자체 할인과 캐시백을 결합한 상생형 할인 구조를 마련하고 10일부터 ‘연말 빅세일페스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상점별 자체 할인과 캐시백 지원을 결합한

대규모 상생형 할인 구조를 마련하고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혜택을 누리는 지역경제 회복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올해 행사는 단순 할인 이벤트를 넘어 상가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혜택을 극대화한 새로운 소비 상생 모델로 기획됐다.  
행사는 오는 25일까지 16일간 진행되며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최대 300개 상점을 모집해 추

진할 계획이다.  
이번 ‘연말 빅세일페스타’는 추석 명절과 영산강 축제 기간 운영한 ‘나주시 상가 상생페이백 행사’를 더욱 확장한 방식으로 상점들의 할인 부담 완화를 위해 참여 상가 보상 지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5~9% 현상 할인 제공 상가에는 10만 원, 10% 이상 할인 제공 상가에는 20만 원을 행사 종료 후 보상 지원한다.  
행사 기간 참여 상가는 최소 5%에서 최대 20%까지 자체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나주시는 여기에 15% 캐시백을 추가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연말까지 특별 할인 중인 나주사랑상품권 모바일, 카드 할인을 18%(10% 선할인, 8% 캐시백)에 더해 소비자는 최소 38%, 최대 53%에 달하는 실질적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나주시는 지역 내 많은 상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선착순 300개소까지 참여 상가 모집 진행 중으로 신청은 4일까지이며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행사 기간 5% 이상의 자체 할인이 가능한 상점이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나주시청 홈페이지 ‘상생페이백 참가신청’ 게시판 온라인 접수, 이메일, 나주시청 일

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등으로 상인이 편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나주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연말을 맞아 시민들께서는 큰 폭의 할인 혜택을 누리고 지역 상권도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빛가람 호수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빛정원 페스타를 둘러보고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나주에서 행복한 소비로 관광도 하고 상생페이백까지 얻어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장흥 회진면에 150억 해양레저단지 조성 추진

장흥군-동아컴퍼니 투자협약  
계류·호텔·캠핑 사업 진행

장흥군 회진면 대리권역에 해양레저단지가 들어선다.  
장흥군은 동아컴퍼니와 150억원 규모의 해양레저단지 조성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아컴퍼니는 1차로 계류사업, 캐빈호텔사업, 캠핑사업을 진행하며 추진상황에 따라 유람선 운영 등 점차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장흥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남진 해양낚시공원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해양레저단지는 장흥군의 미래 관광산업을 이끌 핵심 프로젝트”라며 “이번 협약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기반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흥 회진면에 들어서는 해양레저단지 조감도.

## 장성군, 평생학습·문해교육 발전 모색

성인문해교사 간담회...열린학습 기회 실현 등 논의

장성군이 성인문해교사 간담회를 갖고 평생학습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장성군은 최근 교사들과 김한중 군수,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생학습과 문해교육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문해교육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등 기본적인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성인문해교육 현황 공유로 시작된 간담회는 고령 학습자 요구 분석과 평생학습을 통한 삶의 회복, 열린학습 기회 실현, 평생학습도시 지정 비전 등 다양한 주제로 폭넓은 논의가 이어졌다.  
앞서 장성군은 문해교육 전문성을 갖춘 지역 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0년과 2024년 두 차

회에 걸쳐 ‘성인문해교사 양성과정’을 운영했다. 올해는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된 교사 18명을 마을·가정 등에 파견하는 ‘찾아가는 한글교실’, ‘디지털 한글교실’을 진행했다.  
군은 오는 23일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올해 학습 성과를 공유하는 수료식과 시화전을 열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성인문해교육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나주시보건소, 건강 증진 ‘우수 유공기관’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수행...건강 지표 개선 기여 평가



나주시보건의소 관계자들이 ‘지역사회 건강증진’ 질병관리청장 유공 표창 수상을 기념해 윤병태(가운데) 나주시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보건의소가 최근 2025년 호남권 만성질환 관리사업 ‘지역사회 건강증진’ 분야에서 우수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체계 강화 등 시민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은 것이다.  
나주시보건의소 건강증진과는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조사 결

과를 지역 보건정책과 건강증진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질적인 건강 지표 개선을 끌어냈다는데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심뇌혈관 건강교실’을 운영해 지역 주민들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직접 측정하고 생활 습관 개선을 지도했다. 보건기관 방문자 1만 5천여 명 대상으로 혈관 수치 측정과 만성질환 관리 교육도 제공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 함평군, 100세 어르신에 장수지팡이 ‘청려장’ 전달

건강·안녕 기원...공경 문화 앞장

함평군이 100세 장수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청려장을 선물하는 등 공경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함평군은 지난 28일 올해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 다섯 분께 장수지팡이 청려장을 전달하며 무병장수를 기원했다.  
청려장은 땅아주라는 풀로 만든 가볍고 단단한 지팡이로, 예로부터 건강과 장수를 상징해 왕이 장수한 노인에게 하사하던 귀한 선물로 여겨져 왔다.  
군은 이러한 전통적 의미를 살리면서도 100세가 된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매년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 대통령 서한문과 함께 청려장을 전달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건강한 모습으로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존경받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이상의(왼쪽) 함평군수가 100세 장수 어르신에게 청려장을 선물한 뒤 박수를 보내고 있다. <함평군 제공>

## 강진군, 전남 최초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

2030년까지 참여·돌봄·안전 중심 여성친화 정책사업 발굴·추진

강진군이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여성친화도시’에 전남 최초로 3회 연속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강진군은 지난 8월 그동안 추진해 온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성과를 담은 지정 신청서를 전라남도의 검토와 추천을 거쳐 여성가족부에 제출했고, 지난달 심사에서 최종 지정 승인을 받았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 전반에서 여성과 남

성이 동등하게 참여하면서 역량 강화와 돌봄·안전 환경이 조화롭게 실현되는 도시를 의미한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성평등 기반 조성, 여성 사회참여 확대, 지역 안전 강화,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 활동 역량 확대 등 5대 목표를 기준으로 지자체를 평가해 지정하며, 5년마다 재협약을 거친다.  
강진군은 2015년과 2020년에 이어 세번째로 여

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며 개편된 심사 기준까지 충족했다. 이는 강진군의 성평등 정책 추진 역량이 다시 한번 공인된 결과다.  
강진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참여·돌봄·안전 중심의 여성친화 정책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성평등 가치가 지역사회 전반에 더욱 확산되고, 여성뿐 아니라 아동·노인 등 모든 세대가 존중받는 포용적 공동체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i@kwangju.co.kr

## 문화 소외 이웃에 ‘찾아가는 문화 체험’

화순군, 행정복지센터서 버스킹·비누 만들기 등 프로그램

화순군이 최근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한 문화 바우처 카드로 기초생활수급자, 차

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4만원을 지원하며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활동 분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지리적 요인, 신체적 요인 등으로 인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사용이 어려운 사용자

들이 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체험비 90%를 지역 주관자인 (재)전남문화재단이 지원해 참여자가 부담 없는 가격으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됐다. 2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실내 버스킹 공연, 비누와 샴푸 만들기, 사계방향제 만들기 프로그램을 즐겼다.  
한 참여자는 “평소 가맹점 이용이 어려웠는데 이렇게 가까운 장소에서 다른 이용자와 함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 좋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담양군 ‘우리마을 골든타임지킴이’ 지정

심폐소생술 등 마을 내 응급상황 초기 대응 체계 강화



골든타임지킴이 지원자들이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이 최근 마을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주민을 ‘우리마을 골든타임지킴이’로 지정했다.  
골든타임지킴이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주민으로,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초기 응급처치를 수행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군은 마을 단위 골든타임지킴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정기 교육을 통해 실질 대응 역량을 높여 주민 주도형 생명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주민들로 지킴이를 지정했다”라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망을 통해 더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